|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2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2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③	2	35	①	2	35	④	2
2	④	3	19	④	2	36	③	2	36	⑤	3
3	④	2	20	⑤	2	37	④	2	37	①	2
4	③	2	21	①	3	38	③	2	38	⑤	2
5	⑤	2	22	②	2	39	②	2	39	④	2
6	③	2	23	②	2	40	③	3	40	④	2
7	①	2	24	③	2	41	④	2	41	③	2
8	②	3	25	⑤	2	42	⑤	2	42	②	2
9	⑤	2	26	③	3	43	③	2	43	⑤	2
10	②	2	27	②	2	44	⑤	2	44	③	2
11	⑤	2	28	②	2	45	①	3	45	③	3
12	④	3	29	④	2						
13	①	2	30	①	3						
14	①	2	31	①	2						
15	②	2	32	⑤	2						
16	④	2	33	④	2						
17	⑤	3	34	③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2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 의하면, 뇌가 글의 내용을 차단하게 되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산만해질 때 뇌가 글의 내용을 차단한다.

[오답풀이] ② 우리의 뇌는 '뇌 가소성'을 지니기 때문에 독서가 사람의 뇌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③ 독서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독서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책을 꾸준히 읽으면 뇌에서 독서와 관련된 부위들 간의 신경망 연결이 강화된다. ⑤ 뇌의 전전두엽은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즉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다독이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과도한 독서 과제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다독이 이루어지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독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더라도 독서에 대한 흥미와 친밀도 등 정서적인 측면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활용해 독서에 있어서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다독이 사고력, 창의력, 독서 능력 등 뇌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다독의 방법이 잘못되면 독서에 대한 능동성과 자발성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지문에서는 뇌의 특성상 우리는 독서와 다른 일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기억 정보가 왜곡된 형태로 저장되는 원인을 다독이 아니라 읽는 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주입식 독서에서 찾고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뇌리에 남은 사람은 능동성과 자발성이 저해되는 것이지, 독서 과정에서 기억 정보를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뇌의 작용을 이해한 후에, 독서를 할 때 외적인 요인들과 무관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독서 습관을 반성하면서 뇌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독서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뇌의 작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찾아보고자 계획하고 있지 않다. ② 뇌의 작용이 독서로부터 받는 영향과 독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독서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독서 외에 뇌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탐색하고 있지 않다.

[4 ~ 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34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사단 칠정 논쟁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으며 출사 등의 정치적 행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특정 논쟁이 정치적 행위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바가 없다.

[오답풀이] ① (가)는 특정 철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하나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특정 철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② (나)뿐만 아니라 (가)도 특정 철학적 입장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이황 등 특정 학자의 세계관이 출사 행위 등 현실 정치에 반영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특정 철학적 개념이 지닌 논리적 모순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단 칠정 논쟁은 조선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칠정에 관한 논의 역시 조선 초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조선 중기에 연산군의 폐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오답풀이] ① 양명학은 주자학이 개인적인 도덕적 깨우침과 실천을 등한시한 것을 비판하며 양지를 통해 실천하는 치양지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깨우침과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 '기'를 통해 발하면서 그 결과로 악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선악이 본원적으로 나뉠 수 없으므로 선의 실현이 구체적인 통치 행위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출사를 선택하였다. 이이가 주장한 구체적 실천에는 개혁을 도모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기대승은 구체적인 통치 행위나 실천에 의해 선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기초해 출사를 하면서도 조종성헌, 즉 선대로부터 정립된 조선의 객관적 규범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④ 기묘사화가 연산군의 폐정을 되살린 것과 같다는 점에서 후대의 신료들은 당시의 사림인 기묘 사림의 정당성에 동조하였다.

6. [출제의도] 특정 학자의 입장에서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왕수인은 내면의 덕성을 키우는 함양(㉠)이 등한시되었다고 비판하며 만물의 이치인 양지를 마음에서 충실히 드러나게 하는 확충을 강조하였으므로, 양지의 확충을 위해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그는 양지가 외물의 자극이 있든 없든 마음에 현존하므로 외물의 자극과 무관하게 언제든 양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① 왕수인은 알맞게 조절하는 중절의 역할을 키우는 것보다 양지의 확충을 중시하였다. ② 왕수인은 내면의 덕성을 키우는 것을 중절이 아닌 양지의 확충과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왕수인의 입장에서 함양은 내면의 덕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맞지만, 내면의 덕성을 키우는 데에 '정'이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도록 하는 중절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④ 왕수인은 사사로운 감정인 칠정이 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함양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드러난 마음 상태에서 양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⑤ 왕수인은 미발 시와 이발 시의 마음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미발 시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발, 이발과 무관하게 언제든 내면의 덕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두 학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주자는 외물의 자극을 받지 않아 미처 발하지 않은 미발 시의 마음에서는 선한 본성인 '성'에 대해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황 역시 미발 시에 이루어지는 본원적인 선의 함양을 중시하였다.

[오답풀이] ㄴ. 이황은 칠정과 사단을 구분하고 선한 것인 사단은 '기'가 아니라 '이'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ㄷ. 주자는 충실히 드러나게 하는 확충이 아니라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중절에 의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인 칠정은 선이 된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ㄱ. 선악의 발생 근거가 '기'의 맑고 흐림을 다스리는 데 있음을 밝힘으로써 본래부터 선한 마음을 찾는 데만 몰두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견해이다. ㄴ. 군주의 덕의 성취가 중요하지만 군주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스스로 출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출사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물러나야 함을 지적하는 견해이다. ㄷ. 칠정에 해당하는 희로애락 같은 감정은 잘 다스려 절도에 맞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정답풀이] ㄱ의 관점과 같이 선악이 '기'의 맑고 흐림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면, 선과 악이 본원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맑고 흐림에 의해 그 결과로 선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선악을 본원적인 차이로 구별할 수 없다고 본 이이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ㄱ에 따르면 본래부터 선한 마음을 찾아 이를 발휘하는 데 몰두하면 악의 제거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여 인욕도 천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양명학의 경우에도 양지의 확충에만 치중하여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을 조절하는 중절이 등한시되고, 그 결과 인욕도 천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③ 이황은 당시의 정계를 악에 가까운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출사를 택하지 않았다. 군주의 도덕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ㄴ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스스로 군주의 도덕성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④ ㄴ에 따르면 우선 군주의 덕이 성취되어야 통치가 안정되므로 군주의 수신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훈구파는 선대로부터 정립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규범인 조종성헌의 준수를 강조하여 군주의 수신, 즉 군주의 칠정이 절도에 맞게 발하도록 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했다. ⑤ 주자학은 마음을 '성'과 '정'으로 구분하고 '성'과 달리 '정'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여 중절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희로애락 같은 '정'을 절도에 맞게 해야 한다는 ㄷ에 따르면, 주자학이 '성'과 '정'을 구분한 것에는 중절이 필요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동음이의 관계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이해(理解)'는 문맥상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이라는 의미이며, ⑤의 '이해(利害)'는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32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검색 엔진은 색인을 활용하여 검색할 때에도 검색 결과를 출력할 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한다. 검색 결과에 '주소'를 포함하여 출력해야 하는데, '주소'는 정방향 색인이나 역방향 색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크롤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문서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특정 문서를 찾는 것도 아니며 무차별적으로 찾는다. ③ 색인에서 단어들을 원형으로 바꾸는 이유는 '귀여운'을 검색했을 때 '귀여워' 등도 검색 결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색어도 원형으로 바꾸어 검색하는 것이다. ④ 특정 문서의 삭제가 역방향 색인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면 검색 속도가 느려질 이유가 없다. 역방향 색인은 색인을 구성하거나 수정 내지 변경 등으로 재구성할 때에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검색 속도는 빠르다. ⑤ 정방향 색인은 단어 위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문서 위주로 정리된 것이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색인의 경우보다 문서를 추가하는 시간이 덜 소요된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대상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방향 색인은 문서의 내용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한 채 단어의 열거 형태로만 바꾼 것이다. 그래서 각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더 유용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 유사도 등을 검색에 활용한다. 이와 달리 역방향 색인은 단어 중심으로 문서들을 기록해 둔 목록이므로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담지 못한다.

[오답풀이] ① 정방향 색인은 두 문서 간 공통된 원형들을 찾아 유사도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해당 문서에 대한 두 행을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방향 색인의 경우에는 유사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② 정방향 색인은 검색어가 여러 단어일 때에 그와 일치하는 원형이 많이 포함된 문서를 찾기 쉽다는 점에서 유용한 검색 결과, 즉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쉽다. 역방향 색인은 검색 속도가 높은 반면 이러한 검색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③ 역방향 색인은 정방향 색인에 비해 검색 속도가 빠르다. 다만 인터넷상의 문서가 변경되었을 때 여러 행들을 수정해야 하므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④ 정방향 색인이나 역방향 색인은 모두 검색이 검색어의 원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어를 저장할 때 원형으로 바꾸어 저장한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크롤러가 수집한 4개의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정방향 색인은 다음과 같다.

ID	내용
1	나, 읽다, 책
2	나, 오래되다, 영화, 보다
3	우리, 영화, 보다, 가다
4	나, 오래되다, 책, 보다, 버리다

그리고 역방향 색인은 다음과 같다.

원형	값
나	(1, 1), (2, 1), (4, 1)
읽다	(1, 2), (1, 4)
책	(1, 3), (4, 3)
오래되다	(2, 2), (4, 2)
영화	(2, 3), (3, 2)
보다	(2, 4), (3, 3), (4, 4)
우리	(3, 1)
가다	(3, 4)
버리다	(4, 5)

[정답풀이] ID 4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가 인터넷에서 삭제될 경우에 정방향 색인에서는 ID 4의 행 하나를 삭제하면 된다. 역방향 색인에서는 (ID, 위치)에서 ID 자리가 4인 것들을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럴 때 원형이 '버리다'인 행에는 값이 하나도 남지 않으므로 이 행 역시 삭제된다. 즉, 두 색인에서 모두 행이 하나씩 삭제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각 원형은 해당 행에서 한 번만 기록해야 하므로, 중복되는 '읽다'를 제거한 {나, 읽다, 책}으로 저장될 것이다. ② 검색어가 '나'이면 ID 1과 ID 2, ID 4가 검색 결과로 산출될 것이다. 이 중 ID 1과 ID 2보다 ID 2와 ID 4의 유사도가 더 높다. '나, 오래되다, 보다'가 공통된 원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는 ID 2와 ID 4가 높은 유사도로 묶여 있을 것이다. ③ 원형이 '영화를'인 것들은 없다. '영화를'은 그 원형인 '영화'로 저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형이 '영화'인 것들의 값이 {(2, 3), (3, 2)}인 것이다. ⑤ 문서 하나가 추가될 경우에 정방향 색인에는 하나의 행이 추가될 것이다. 역방향 색인에는 '우리, 영화, 보다, 극장, 가다'의 행에 값 하나씩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극장'은 기존에 원형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역방향 색인에도 하나의 행이 추가될 것이다.

13.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구성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의 의미이므로, '하나가 둘 이상으로 갈리다.'라는 의미의 '나뉘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4 ~ 17]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54쪽

14. [출제의도] 지문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행정입법이 확정되기 전의 한 절차인 입법예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입법안이 어떠한 세부 절차를 거쳐 마련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흠결이 있어도 해당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는 넷째 문단의 서술로부터 행정절차법 시행 이전에도 입법예고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행정 기관이 예고를 생략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할 때 법제처장은 직접 예고할 수 있다는 둘째 문단의 서술로부터 법제처장이 입법예고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으로부터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 기능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첫째 문단에 법규명령과 자치법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이 입법하는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행정 기관에 관련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행정 기관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 기관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할 때 법제처장은 심사를 반려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는 지문의 서술로부터, 행정 기관이 법제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 제시된 전동 킥보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이유는 전문화된 행정 기능으로 각종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③ 법규명령의 입법예고는 관보뿐 아니라 법제처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해야 한다. ④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추가로 공고할 수 있으므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⑤ 모든 행정입법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입법예고의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제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률의 입법예고에서는 제출된 의견들이 모두 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므로 의견을 선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오답풀이] 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 기관이다. ② 법률의 입법예고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비해 비교적 짧게 진행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되기 때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이 아니라, 행정 기관과 달리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공개되어 있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③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소관 상임 위원회, 법제 사법 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논의되는 것은 맞지만, 입법예고가 이 과정을 거쳐 논의되는 절차인 것은 아니다. ⑤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논의되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절차가 행정상 입법예고에 비해 짧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략되어도 흠결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흠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입법예고와 관련한 두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 사례이며, ㉯는 국가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 사례이다. 각 사례의 입법예고 과정을 분석한 뒤 입법예고에 대한 지문의 설명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법규명령의 경우 그 내용이 건강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을'이 B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40일 동안만 한 것 역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은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례에서도 전염병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결과 통지 없이 곧바로 공포했으므로, 부작용 우려 의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흠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입법예고는 확정된 입법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받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법규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고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갑'이 변경된 조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은 입법예고의 절차상 적절하다. 하지만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인데도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입법예고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입법 과정에서는 입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것이어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18 ~ 21]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소대성전」(수능특강 301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호왕이 명나라 천자 및 명나라의 원수인 소대성과 대립하는 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④ 지문 전체적으로 속담과 옛글이라 할 만한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신이 호왕의 계략에 속았음을 깨달은 소대성은, 군사들에게 '내 이제 군을 거느리고 가면 길이 자연 더디며 미처 (천자를) 구치 못할 것이니, 너희는 군사를 정돈하여 바삐 오라.'라고 하며 군사들을 뒤에 남겨 둔 채 자신은 먼저 명나라 진지로 돌아갔다.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⑤ 소대성이 호왕의 목을 벰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난 천자는, 소대성에게 '경의 충성은 고금에 하나이라(유일하다).'라며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한 뒤, '도성에 돌아가 천하를 반분하여 경의 공을 갚으리라.'라며 나라 영토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다.

20. [출제의도] 두 장면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는 명나라 진지에 돌아온 소대성이 천자를 구하게 되기까지의 행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A]가 소대성의 행적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B]의 마지막 장면은 호왕이 천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소대성이 보는 상황을 담고 있는데, [A]에서는 소대성이 호왕을 꾸짖으며 천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상황을 담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B]의 마지막 장면에서 [A]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③ [A]의 후반부에는 호왕의 시각에서 본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B]에는 소대성의 시각에서 본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④ [A]는 '만승천자 울음소리 구천에 사무치시니 어찌 옥황상제 감동함이 없으리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뒤 소대성이 천자를 구하러 오는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옥황상제가 천자를 돕기 위해 소대성을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다. [B]는 소대성의 앞에 나타난 '일 점 구름'이 소대성에게 갈 곳을 일러 주는 상황을 담고 있는데, 정황상 이 '일 점 구름'이 일러 주는 말은 곧 초월적 존재의 조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곳곳에서 '도적'이 일자 천자는 이를 근심하여 '각처 수령과 변장들을 경계하여 군기를 정돈하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흉노'와 '서융'의 '반역'이 일어난 것이다. 천자가 나라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대비하지 않아 반역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호왕은 북흉노와 서융의 군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명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랑캐'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랑캐'인 호왕은 '만민의 도탄을 없게 하'겠다며 '천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민족인 적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호왕은 소대성을 속이고 소대성이 없는 틈을 타 명나라 진지를 급습할 만큼 지략이 뛰어나며, 소대성 말고는 대적할 수 있는 이도 없을 만큼 용맹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호왕의 능력이 강조된 것은, 기존 질서가 거세게 도전받는 상황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자, 그러한 적이 패하는 서사를 통해 기존 질서에 정당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대성이 호왕을 죽이자 서술자가 '호왕의 용맹으로도 이렇듯 죽으니 천의를 가히 알러라.'라고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22 ~ 27] 현대시 – 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 홍대용, 「의산문답」(수능특강 88쪽, 244쪽)**

➔ **작가 연계 : 김현승, 「오월의 환희」(수능특강 85쪽)**

2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언젠가, 아 언젠가는'과 '하루, 이 하루를'에서 시어의 반복과 쉼표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각각 '그 사람'이 미래에는 출현할 것이라는 소망 섞인 믿음의 간절함과,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부각해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그늘 — 너에게서……'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에서 말줄임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말줄임표로 인해 시의 호흡이 조절되어 '그늘'의 의미와 화자가 '그늘'에게서 받은 인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그늘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으므로, 말줄임표가 상반된 감정의 충돌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는 '그늘,/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와 이어지는 시행이다. 화자는 '그늘'이 '밝음'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듯, '눈물'이 기쁨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늘'과 '밝음', 슬픔과 기쁨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더 큰 섭리(절대자의 섭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삶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을 담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늘'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하면,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오월의 밝고 환한 들판에서 나무가 드리운 그늘을 보고 화자가 그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그늘,/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는, 환한 빛을 받아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모습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밝음'과 '그늘'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밝음'을 부각하는 수단이 되며, 그럼으로써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화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 '이 밝음, 이 빛은,/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그늘 — 너에게서…….'라는 구절은, 화자가 '그늘'로부터 더욱 풍성한 '빛'을 찾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하면 이는, '그늘'이 오월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해 준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내 아버지의 집/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그늘,/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라고 하는 것은, 온세상의 대지 모두에 밝은 빛과 함께 그 빛에 따르는 '그늘'이 적절히 드리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짐으로써 오월의 감흥이 한껏 돋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가 모두 동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어이기는 하지만, 역동적(=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은 대상에 대한 심화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의 분출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에 나타난 동작에서는 남에게 모습을 보일까 꺼려하며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환기된다. 따라서 ㉢에서는, 엄혹한 현실 때문에 대상을 향한 그리움과 서러움을 억누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풀이] ④ ㉣은 대상을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 저 남산 꽃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상이 출현하게 될 상황과 대상의 속성을 비유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나타낸 표현으로, '그 사람'이 시련을 딛고 결국은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25. [출제의도] 특정 부분에서의 화자 또는 인물의 태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화자는 밝고 환한 들판에 드리운 '그늘'의 모습을 보고 '그늘'이 '밝음'에 '옷을 입혔'다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늘'로 인해 '밝음'이 더욱 돋보이는 상황에 대한 찬탄을 내비치면서, 그것을 '형상'으로서 '진리'를 구체화하여 논하는 인간의 행위와 결부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A]는 '그늘'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에서 느낀 인상을 인간의 행위와 연결함으로써, 대상인 자연과 인간을 동질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B]에서 허자는 상상 속의 동물과 자연물 등을 열거하며, 그들이 '어찌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상과 인간이 동질적이지 않다는(곧 인간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A]는 '그늘'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인간 삶의 특정한 모습을 떠올린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삶의 교훈을 실천하려는 태도와는 무관하다. ③ [A]는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부각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B]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허자가 자신의 이름인 '허 자'는 '천하의 참을 살피고자' 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데, 상대는 '실 자로 이름했으니 천하의 거짓을 이기고자 함일 터'라고 한 것에서, 허자가 상대인 실옹 역시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허허실실은 현묘한 도의 진리이니 내 그의 말을 들어 보리라.'라고 한 것에서, 상대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더욱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자가 자신과 실옹이 각각 '허자'와 '실 자'로 이름했음을 언급하며 '그의 말을 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그가 방식은 다를지언정 똑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에 그와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자신과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짐작한 것도, 그와 논쟁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나)는 전체적으로 어둠의 이미지가 지배적인 시이다. '보릿대 들불'이 치솟아 올라 '들을 밝히'는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시의 배경에 전제된 이미지인 어둠의 짙음을 부각한다. 화자는 '언젠가'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거센 불길로도 걷히지 않을 만큼 짙은 어둠을 찢는 '그 사람'의 존재는 밤의 어둠을 종식하는 아침의 빛을 떠올리게 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때의 어둠은 곧 군부 독재하의 절망적 상황을,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군부 독재하의 억압된 현실의 종식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식물은 예의가 없다는 허자의 말에, 실옹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허자에게 말했다.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다. 떼를 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무리 지어 더부룩이 자라면서도 평안하고 느긋한 것은 초목의 예의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동식물에게는 슬기와 깨달음이 없다는 허자의 말에, 실옹은 '무릇 슬기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행함이 없다. 그러니 동식물이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식물은 슬기와 깨달음이 없으므로 오히려 사람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슬기와 깨달음이 인간의 부정적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옹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옹이, 슬기와 깨달음이 없는 인간을 동식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④ 실옹은 용이 '광풍과 폭우, 벼락'으로써 '병형'을 행한다고 하였고, 봉황이 '높은 산봉우리에서 서로 응하며 울음을 우는 것'이 그들의 '예악'이라고 하였다. 용이나 봉황이 예법이나 형벌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28 ~ 30]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잠노래」 (수능완성 225쪽)**

➔ **작가 연계 : 박인로, 「자경」 (수능특강 56쪽, 수능완성 251쪽)**

28.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팔덕문' 앞에 있는 '크나큰 한 길이 넓고도 곧'은데 하루 종일 오가는 '행인(㉠)'이 없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이때 행인들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수양을 하여 덕을 닦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나타낸다. 화자는 ㉠을 통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화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졸음과 싸우며 '낮에 못 한 남은 일을 밤에' 해야 하는 처지이다. 화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 즉 낮밤으로 한가하여 밤이 깊도록 잠 못 들어 한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자신에게 오는 것이냐며 '잠'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잠이 부족한 채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기 위한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은 길을 잃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상황에 처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세주를 만들어서' ㉡을 '다 건네려(건너게 하여 주려) 하였'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일 뿐, 부정적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환기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화자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드는 모습을 의인화된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든다거나 '눈썹 속에 숨었'다거나 '눈알로 솟아 온'다거나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요수'를 피운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격이 부여된 '잠'의 움직임을 통해 화자가 잠에 시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여 이를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황혼이 대듯 마듯' 할 때 '낮에 못 한 남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황혼'이 되어 '등잔 앞'에서 바느질을 시작한다. 이처럼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결부되어 낮 동안의 노동이 밤이 된 이후에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화자의 삶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명경'과 '명덕'을 대비적으로 제시하여 덕을 닦지 않는 세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거울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닦지만 '값없이' 닦을 '명덕'을 닦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수양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명경'이 개인적 수양을, '명덕'이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가)는 수양을 통해 덕에 이르는 것을 문을 통과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성의관'을 지나 '팔덕문'으로 가는 길이 '넓고도 곧다'는 것은 뜻을 정성스럽게 하여 수양을 하면 팔덕을 갖추는 데 이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보기>에 제시된 내용대로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뜻의 제목을 고려할 때, (가)의 작품 표면에 나타난 타인에 대한 탄식은 화자 스스로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길 잃은 행인을' 위한 '제세주'를 '모강두'에 버린 '변변치 못'한 '사공'에 대한 탄식은, 사회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화자 스스로의 경계와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 34] 현대소설

➔ **작가 연계 : 박경리, 「시장과 전장」 (수능특강 327쪽)**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영'은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으나 한강 가에 피난민들이 몰려 있지는 않았다. '지영'이 한강을 내려다보며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떠올린 서울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갔'다고 진술되고 있다. '지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피난민들을 본 것은 고개를 넘어 상도동으로 갔을 때이다.

[오답풀이] ②'중략' 이후 부분에서 '지영'은 옷전을 펴 놓고 앉아 있다. 옷을 팔러 나온 것이다. 또한 '상품처럼 나란히 앉아 있는 아이들 머리를 내려다보며'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물건을 당장 팔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영'이 옷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영'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다. 이어지는 '사나이'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지금은 그날 옷 한 벌 팔아서 그날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나중에 물가가 더 오를 것을 대비할 여유가 없다.

[오답풀이] ③'남자'가 '바깥양반은?'이라고 묻자 '지영'은 마치 '팔매(돌팔매)처럼 남자의 이마를' 치는 눈빛, 곧 잔뜩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뒤이어 제시되는 '광이'의 말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난다('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도 '지영'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상대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거짓으로 둘러댄 말이라 할 수 있다. ④전쟁 때에는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물건 조달이 평소와 같지 않으므로 물건이 평소보다 더 귀한 상태가 된다. 물건이 귀한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는 오른 상황임을 나타낸다.

3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우리 백성은 외국 놈들 종질이나 하는 게 되레 속 시원하'겠다는 말은, 화자의 진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그리고 열강들이 패권 다툼을 하느라 한반도에 외국 군인들이 들어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두고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A]에서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하고 있지, 풍자적 어조도 사용되지 않고 있고 상황을 통쾌하게 여기는 마음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⑤'방위대는 반수 이상 죽었답니다. 굶어서 죽었다지 않습니까'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남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서 간접 화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나이'는 이를 통해 자신이 들은 사실을 제시할 뿐이지,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날 옷을 팔지 못한 '지영'은, 다음 날에도 옷이 팔리지 않음에도 '물건 팔 생각도 않고 바보처럼 앉아'만 있었다. 따라서 '지영'이 호객 행위에 나섰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지영'이 옷을 한 가지도 팔지 못한 것은 '지영'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뿐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피폐해진 삶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지영'을 딱하게 여긴 옆자리의 '사나이'가 대신 흥정을 붙여 주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지영'이 물건을 팔지 못한 것이나, 초라한 차림새의 양공주가 물건을 사지 못하고 시장을 배회하는 모습 등에서 전쟁 통에 사람들이 가난해진 탓에 구매력이 낮아진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빨간 스카프'로 시작하는 문장은 마지막에 '놓아두더니'로 끝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지금의 서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서울, 즉 지금 '시체'가 되어 '기동'도 못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 전쟁 전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삶을 영위하던 때의 서울에 대한 묘사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흰 행주치마 입은 새댁'의 묘사는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참상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5쪽

강연자는 '지방은 ~ 분들이 많으시죠?', '지방에 ~ 생소하시지요?', '어떻게 음식을 ~ 알아볼까요?' 등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2쪽

학생이 강연에서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듣고 있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포화 지방이 ~ 반성하게 되었어.'라고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며 들었다. ②'지방의 종류에 트랜스 지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라고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들었다. ④'지방 전체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라고 강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떠올리며 들었다. ⑤'지방은 ~ 알게 되어 좋았어.'라고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37. [출제의도]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5쪽

강연자는 2014년에 14.8g이었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포화 지방 섭취량이 2020년에는 17g으로 늘었음을 보여 주는 그래프인 <자료 2>를 ㉡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포화 지방 섭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45쪽

38. [출제의도] 토론 논제의 성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로서 반려동물 매매의 법적 금지라는 정책의 실행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는 논제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행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고 밝히는 논제라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의 입론에서 상대측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찬성 1'은 입론에서 '학대받거나 고통받지 않고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인 동물권'이라고 하여 논제와 관련된 용어인 동물권의 개념을 설명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③'찬성 1'은 입론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해외 일부 국가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반대 1'은 입론에서 유기 동물 중 상당수가 반려동물 매매에서 상품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비품종견이라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반려동물 매매가 유기 동물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반대 1'은 입론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지금처럼 허용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유기 동물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40. [출제의도] 토론의 반대 신문에 대하여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의 '찬성 1'은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이미 폐쇄되었거나 규정에 맞게 개선되었다는 상대측의 발언과 반대되는, 올해에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번식장들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A]의 '반대 2'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기 동물이 적은 이유가 교육과 심사를 통해 선별된 사람들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여, 반려동물 매매 금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유기 동물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이 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3문단에서 유기 동물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반려동물 구매자에 대한 교육과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올해 초 실시된 한 설문 조사 ~ 동물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라고 설문 조사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반려동물 매매가 금지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해 놓은 최소한의 생산 및 사육 환경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그저 상품으로 판매할 새끼를 낳도록 강제한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반려동물 매매가 유지되는 한 번식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반려동물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기 동물의 대부분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글의 끝부분을 적절하게 이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첫째 문장에서 '동물권을 침해하는 번식장이 사라지고 유기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려동물 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 둘째 문장에서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반려동물 매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3쪽

43. [출제의도] 초고에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Ⅱ. 조사 절차' 부분에 '조사 기간 및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을 각각 항목화하여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결론 부분에서 결과를 요약한 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있으나 소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Ⅰ. 조사 목적'에 따르면 점심 방송 만족도를 조사하게 된 동기는 최근 점심 방송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45. [출제의도] 보고서의 결론 및 제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에는 점심 방송이 무분별하게 송출되지 않도록 방송부가 미리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학생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점심 방송의 송출 상태를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점심 방송 송출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점심 방송의 내용적 측면이 아닌 내용 외적 측면의 주제이기도 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2쪽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라.'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구와 절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4쪽

'들판 건너의 마을에 가기에'는 명사절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사절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의 '아주 길다'는 두 개의 어절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며, '혀'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형용사구로 볼 수 있다. ② ⓑ의 '정말 잘'은 두 개의 어절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며, '구워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사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말 잘 구워진'은 '빵'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이때 관형사절의 주어 '빵'은 생략되었다. ④ ⓓ의 '가을 소풍'은 두 개의 어절이 모여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구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을 소풍 가자고'에서는 격 조사 '고'가 사용되어 앞 절이 간접 인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을 소풍 가자'는 인용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과 음운의 개수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33쪽

'걷히다[거치다]'는 종성의 'ㄷ'과 초성의 'ㅎ'이 'ㅌ'으로 축약된 후, [거티다]가 [거치다]가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구개음화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 음운의 개수는 7개에서 6개로 한 개 줄었다.

[오답풀이] ② '급행열차[그팽녈차]'는 축약 및 첨가가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③ '넓죽하다[넙쭈카다]'는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다. ④ '입원율[이붠뉼]'은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입원'의 'ㅂ'이 다음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되는 것은 연음 현상에 해당한다. 이는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힘없이[히멉씨]'는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문장에 쓰인 대명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07쪽

'실수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니 신경 쓰지 마.'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오답풀이] ② '여기'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③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재귀 대명사이다. ④ '어디'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꼭 집어 댈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서술격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9쪽

'불휘'는 반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에 해당하므로, 서술격 조사 'Ø라'가 결합한다. 결합한 형태는 '불휘라'가 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그릇'과 '문짝'은 모두 자음으로 끝난 체언에 해당하므로, 같은 형태의 서술격 조사가 쓰일 것이다. ② '뎨ᄌᆞ'는 'ㅣ라'와 결합해 '뎨ᄌᆡ라'의 형태로 쓰일 것이다. ③ '부텨'는 'ㅣ라'와 결합해 '부톄라'의 형태로 쓰일 것이다. ⑤ '소리'와 '솔'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면 그 형태는 '소리라'로 동일할 것이다.

[40 ~ 42]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6쪽

40. [출제의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반영된 방송 기획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송의 진행자는 '30분이나 기다리려면 지루하겠죠? (미리 재워 둔 고기를 꺼내 보여 주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재워 뒀답니다.'라고 하여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다. 이는 접속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방송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기획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고정 시청자 확보를 위해 '구독'을 눌러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다. '빛이나'가 '구독'을 눌렀다는 채팅 대화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② 채팅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채팅 창에서 대화할 때 언어 예절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 않다. ③ 진행자는 방송을 마치기 전에 조리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만들 음식을 안내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진행과 촬영을 동시에 맡다 보니 진행이 다소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다. 혼자 요리하며 촬영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함께해 주어 감사하다는 마무리 인사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41. [출제의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 매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가 자막을 통해 요리 재료를 안내한 것은 기존의 텔레비전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개방적 특성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 매체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시청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불고기의 재료를 보여 주면서 감탄사 '자'를 사용하고 있다.

[43 ~ 45] 매체

43. [출제의도]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24쪽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주소 좀 공유해 줄래?'라는 '유리'의 요청에 '한별'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열람한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영수'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②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내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준서'이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24쪽

㉢에서 언급된 자료의 내용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 '21년에 19년 대비 2배 이상 언급 증가'라는 문구와 화살표를 함께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반려 식물 언급량이 비교되도록 표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25쪽

'준서'는 '반려 식물 키우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의 내용'을 '막대그래프로 바꿔서 제시하자'라는 '한별'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응답 비율을 그래프 위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에 제시된 그래프에는 각각의 응답 비율 대신에 순위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게 수정된 것이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